



어느날 한국기원 한쪽 구석에서 바둑 황제 이창호가 허름한 중년 남자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.

그 당시 이창호는 엄청난 대국 횟수에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.

그런 이창호가 한가하게 바둑을 상대해주는 그 낯선 남자는 누구일까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 하면서도 부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.

알고보니, 그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세계 제일의 바둑황제 이창호와 바둑이 두고 싶어 무일푼으로 한국기원에 온 평범한 사람 이었습니다.

이창호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대국제의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. 고통스러운 대국이었지만 편안하게 응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.

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려고 할 때,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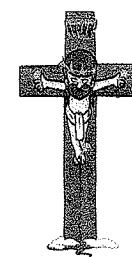
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셨습니다. 고난주간에 그 분을 기억합니다.

◀그땐 그랬지▶ 학교 앞 만화경

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불거리도 참 없던 시대였습니다. 학교 앞 아저씨에게 돈을 내고 필름을 고르면 만화경을 두 눈에 대고 손잡이를 눌렀습니다. 찰칵 소리 내며 한 장면씩 보이는 사진속엔 자유의 여신상, 에펠탑도 있었습니다. 참으로 신기함이었습니다. 백설공주와 피노키오도 흑백 시대에 칼라로 볼 수 있는 기계였었지요.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만 생존하는 오늘에서 그 날의 정지된 화면들을 마음속에서 움직여 봅니다



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	“예수!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” (요13:35)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활 -설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12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5년 3월 20일
☎ 369- 5077 .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www.calvary.org.nz		



거꾸로 된 일

최형우

“하람아! 밥 먹어라.”

“제발 밥 좀 먹어라.”

우리 집에서 매일 들리는 소리입니다.

밥 안 먹으면 지 손해고, 지가 배고플 것인데
왜 부모가 애타 하는지 아시지요?

아이는 아직 무엇이 정말 유익한지 철이 없고
부모는 그 아이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.
전도를 해보면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.

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
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
한 사람의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고
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

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
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
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여
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신데
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,
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
“하나님! 저를 제발 멸망에서 건져주세요.” 해야 옳은데
현실은 대부분 그 반대입니다.

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은 애타서
“선생님!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세요” 애원하고
정작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은 배짱을 내립니다.
이 세상엔 거꾸로 된 일이 종종 있습니다.

◀아내의 수칙▶

남편이 외출할 때 기분좋게 하라
이럴때 존경받고 있다고 느낀다
집에서는 작은 소리를
밖에서는 큰 소리 치는
남편이 된다.

◀남편의 수칙▶

남 앞에서 아내를 모욕하는 말이나
태도를 보이지 말라.
남편이 내 편이 아닌
남의 편인 남편으로 보인다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

Gloria
참회의 기도
Confession Pray

용서의 선언
Proclaim

*찬 송
Hymn

*성 시 교 득
Response Readingd

신 앙 고 백
Apostle's Creed

교 회 소 식
Welcome & Announcements

주 일 학 교
Sunday School

찬 송
Hymn

기 도
Prayer

성 경 볼 듯
Scripture Reading

성가대 찬양
Choir

설 교
Sermon

찬 송
Hymn

헌 금 기 도
Offering Pray

응 답 송
Response Song

축 도
Benediction

Calvary

다 같 이

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
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

28장

고난주간(2)

사 도 신 경

인 도 자

다 같 이

147장

아 동 부

다 같 이

현석호 안수집사

인 도 자

은 실 자가 성가대
(7,8구역)

김성국 목사

마태복음 26:69-75

『예수님의 마지막 준비(3)』
“이번엔 베드로 마저”

141장

인 도 자

다 같 이

김성국 목사

‘이 믿음 더욱 굳세라’

(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◆3월의 예배위원◆

일자	기 도	현금위원	주방	은실자가
6	지찬영	권정호	8구역	1남여
13	최재학	김경구	9구역	5,6구역
20	현석호	김경숙	10구역	7,8구역
27	김교섭	김경천	청년부	학생부

◆3월의 교회력 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6	구역예배(11)
20	고난주간 자녀위한 특별새벽기 도회(21-26)
27	부활주일 식사친교주일.당회

2005년 교회생활

- 1.성경 1독만 하기(하나님 사랑)
- 2.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(이웃 사랑)
- 3.처음 만난 날 처럼(교우사랑)

주일예배.이동,학생: 낮 12시 수요예배: 7:30 pm

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
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.

*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
바른 판단이 됩니다.

새벽기도회:금 6:00 청년부:토 저녁 4시

1. 교우소식

- *손영희 집사. 친정모친의 중환으로 미국방문
- 2.오늘은 종려주일, 다음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.
*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.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주간 되십시오.
3. 2005년 부활절 봉헌 성경쓰기 “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” <범위> 마태복음
*이번 부활주일에 드려지는 ‘내 손으로 쓴 성경’으로 훗날 자녀들이 쓰다듬으며
아버지 어머니의 채취를 맡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4. “자녀위한 특별새벽기도회” <일시> 21일(월)-26일(토). 새벽 6시 (5:20 Door Open)
*지혜를 주십사고, 건강을 달라고, 좋은 베파를 만나게 해 달라고, 직장과 사업의 길을
잘 열어달라고.... 경건함을 품은 새벽제단에서 간구해 봅시다.
5. “성 금요 연합예배”. 25일(금) 오전 11시 <장소> 주님의교회
*주님 실자가에 달리시던 날, 그래서 공휴일로 지내지만 장로회신학대학동문교회들
은 모여 예배를 드려 우리의 마음을 실자가곁에 함께 둡니다. 새로 이사한 주님
의 교회당도 궁금했었는데..(38 Mahunga Dr. Mangere Bridge)
6. 금주 수요예배는 쉬겠습니다
*한 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와 성금요예배가 있는 주간이어서 수요예배를 한번 쉬는
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기도드릴 분을 위해 예배당 문은 열어 놓겠습니다 (7:30-8:30pm)
7. 다음주일 식사친교는 구역별 모임으로 갖습니다.(구역장 모임:예배 후)
<구역> “청국장 Day” <학생, 청년> “부대찌개 Day”
*청국장 & 밥: 교회제공 *기타재료 & 간단한 반찬 & Gas 불 3개: 구역준비
*너무 과다한 반찬으로 구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자그마한 배려 부탁드립니다.

◀착한 시인▶

연필로 쓴 우리 매꽃 이야기

유재영

세월이 가도 본적지에 가면

볼 수 있는 꽃

우리 누님 훈삿날

뒤울 안에서 훈자 가만 피던 꽃

빌려온 책, 갈피에 몰래 넣어 보내던 꽃

다슬기 사는 강가 안개비에 피는 꽃

고향 떠나오던 날 훑담 기대 피던 꽃

쑥국새 우는 밤 훈자 가슴 닫는 꽃

키 작은 꽃을 보면 채송화가 보

고 싶어지고 고개 숙인 꽃을 보

면 할미꽃이 보고 싶어 집니다.

진홍색 작은 꽃을 보면 산들이

품고 있을 진달래가 보고 싶어지

고 화사한 작은 꽃들을 보면 폐

랭이 꽃이 보고 싶어집니다.

어디를 가도 가슴속에 피어있는

꽃만한 꽃들이 없습니다. 꽃들은

제 철에 피어 제 철에 떨어진다

지만 내 가슴속에 피어있는 꽃은

제철이 지날수록 더 짙은 빛으로

흔들립니다.